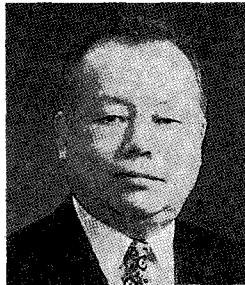


낙농육우업계에도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



김남용
본회 회장

우리 나라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여 있다. UR파고 WTO파고에 이어서 IMF파고에 그 어느 분야보다도 우리 낙농육우업계가 더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UR파고, 또는 WTO파고는 많은 낙농육우인들이 피부로 느끼지를 못하였다. 그러므로 어떤 파고에서도 우리 나라의 낙농육우산업은 동요가 없으리라고 성급하게 과신까지 하였다. 그러나 IMF파고는 우리에게 치명타를 주고 있다. 즉, 우리 나라 낙농육우업계에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 요즘 지상에는 “대란”이란 단어가 끊임없이 오르내리고 있다. “대란”이 우리 낙농육우업계에만은 비켜서 지나가기를 바랬다. 그러나 우리 낙농육우업계에도 대란이 정면으로 다가서고 있다.

한육우는 3월 현재 2백76만2천두로 3개월 전보다 2만7천두가 증가하였고 젓소도 56만8천두로 3개월 전보다 2만4천두가 증가하였다. 쇠고기 수입쿼터량도 '97년도의 16만7천톤보다 2만톤이 증가한 18만7천톤인데 반하여 '98년 1~4월간의 쇠고기 소비는 전년동기대비 16.4%나 감소하였다. 그러므로 쿼터량이 전부 수입된다고 가정하였을 때 '99년으로 이월되는 쇠고기는 12만8천톤으로 '97년에서 '98년으로 이월된 4만6천톤보다 2배가 넘는 물량이다.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많다는 것으로 금년 중에도 소값은 기대하기 어렵다는데로 결론이 내려질 수 있다. 소 구매자금도 없지만 금년도 WTO보조금 허용기준상 구매두수는 10만9천두인데 이미 1~4월까지 5만1천두를 1,480억원을 농협과 축협에서 차입하여 구매하였으며 5월 이후도 차입하여 구매케 되었다. 현재 구매대기 한우가 일부 가수요가 있겠지만 9만여두라고 한다. 구매대기우의 절반 가량만 구매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금년에 구매가능두수 전량을 구매한다는 전제 하에서인데 한우구매자체를 중지하여야 한다는 여론도 강함으로 구매방법과 구매량도 수정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우유도 생산은 전년동기대비 4%가 증가하였는데 소비는 17.3%가 감소하였다. 그러므로 1~2월간은

1일에 90톤의 분유가 잉여 되었으며 3~4월은 50톤의 분유가 누적되어 4월말 현재 1만5천톤의 분유가 재고로 되어있다. 예년 같으면 4~5월에 우유성수기로서 우유부족상태였으나 금년도는 계속 잉여 되고 있다. 그 결과 정부에서 원유대 자금으로 326억원이 지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성격으로 지불 하던 유질개선비도 지불중지한 유업체가 많아졌고 유업체 일방적으로 쿼터제를 도입하여 일정량에 한하여 원유대의 제값을 주고 쿼터외의 원유에 대하여는 분유로 또는 덤핑 판매하여 덤핑한 값으로 정산을 하기도 하고 또 원유대 인상하기 전의 원유대로 원유대를 지불하는 곳도 있다. 원유대의 일부를 분유로 주는 것은 통(관)례로 되었다. 정부 그리고 일부 소비자들은 분유재고가 산적하여 있는데 제값을 받으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원유대를 인하하자고 주문도 하고 있다. 팔리지 않으니 값을 내리셔서 싸게 팔면 소비가 잘 되지 않겠느냐는 이론이다. 그러나 [redacted] 모르는데서 오는 결과이다. 소 값이 곤두박질하였음에도 시중의 정유 [redacted] 않고 있고 원유대를 5%인상하였을 때 우유제품 공장도는 10%내외, 소 [redacted] 인상한 예가 있었으며 유업체에서 또는 정부에서도 유통과정의 문제점 [redacted] 일정입니다.

농림부에서도 연일 한우대책회의 [redacted] 뚜렷한 방안이 도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쇠고기소비, 그리고 우유소 [redacted] 쉽게 풀리겠지만 소비가 안 되는 상태 하에서의 대책은 묘안이 나오질 [redacted] 쌓여있는 분유가 소진되어야 하는데 계속 누증되고 있으니 안타깝지만 [redacted] 값이 폭락하게되고 수매 육을 방출치 않고 쌓아두면 소값은 어느 선으로 인상되겠지만 유통기한이 임박한 쇠고기는 출하치않으면 폐기하게 되고, 마치 그물에 걸려든 고기격이 된 것이 낙농육우산업이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뒤가 다 막혀있습니다. 쇠고기라도 소비가 잘 되면 젖소를 장려금을 주어가며 도태를 하면 우유잉여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데 도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소값이 곤두박질하게 됩니다. 서울우유조합에서 도태장려금을 주며 도태를 유도하니 도태두수도 많지 않았으면서도 도태우값이 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낙농육우지” 창간 17주년을 맞이하면서 권두언에 희망찬 글이 실려져야 하는데 반대로 대란주의보와 같은 글을 실리게 됨을 한없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희망을 잃어서는 안됩니다. 희망을 잃는다는 것은 죽음과 다를바가없습니다. 사회에는 굴곡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 어려움은 우리 낙농육우 업계에만 떨어닥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나라의 전산업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려움이, 대란이 닥쳤습니다. 이 어려움을 참아내지 못하면 도산하고 자살소동까지 일어나지만 견디고 또 이겨내면 그런대로 산업에 새싹이 움틀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져야합니다. 지면을 통하여 수차 강조하고 또 강조한 사항이지만 식량을 자급하지 못하는 국가는 선진국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나라의 식량자급도는 논의 하기조차 부끄러운 수준이라는 것은 온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식인 쌀은 그래도 자급도가 높습니다. 이 주식인 쌀의 자급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 나라의 국민들은 먹거리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쌀이 그래도 자급도가 높은 것은 우리 나라의 소산업이 농촌에서 지주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소 산업이 붕괴되면 쌀산업도 농촌도 더 나아가 국가도 붕괴됩니다. 소 산업은 이런 차원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하고 정부가 온 국민이 지켜야 합니다. 우선은 이 산업에 종사하는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이 대란이 스치고 지나가면 우리 나라의 낙농육우산업에도 새 싹이 튼튼하게 그리고도 싱싱하게 돌아날 것 입니다.